순창군, 도시민 유치 총력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체계 구축… 지역 활력 회복나서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순창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사업 등

전북 도내 및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2023년말 기준 인구 증가에 성공한 순창군이 올해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에 나선다.

군은 귀농·귀촌 초기부터 정착까지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순창으로 전입인구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순창군은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전국 각지의 도시민들이 순창으로 전입해 왔다.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농업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 등 순창을 선택해 준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사업, 귀농자 소득사업, 주택수리 및 신축 지원사업,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사업, 귀농현장실습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은 도시민이 순창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소통의 장에 참여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50여명이 참여해 실제로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군은 귀농귀촌인들과 지역민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매년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행사, 마을 환영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농촌을 떠나는 귀촌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순창군에서 많은 도시민들이 제2의 삶을 일궈 나갔으면 좋겠다"며 "임기 동안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귀농·귀촌 유치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및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의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사항은 정주정책과 귀농귀촌팀(650-159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 실내 전용 씨름장. 〈사진=임실군청 제공〉

임실, 씨름 전지훈련장 메카 각광

1월 총 22개팀 213명 매년 증가세… 체육시설 등 만족도 높아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한 씨름장이 맞춤형 전지훈련장으로 전국 씨름선수들에게 큰 각광을 받으며 명실상부 씨름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월에만 1~2차에 걸쳐 임실군을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은 총 22개팀 213명에 달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실시하는 씨름 전지훈련으로 충남 예산 삽교초등학교 외 14개팀 143명 선수가 전지훈련을 실시 중이다. 이어 이달 셋째 주에는 충남 태안고등학교 외 6개팀 70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임실군 씨름장 준공이래 임실군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씨름선수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하계 전지훈련으로 20개 팀 138명이 방문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임실군 씨름장을 찾는 선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실내 전용 씨름장 외에도 인근에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전북 포함 타 시도에서 온 씨름부들은 임실군 씨름장 및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을 이용,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다. 더욱이 관내 숙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이 가능하고 푸짐한 아침 식사도 제공되어 참여한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팀이 늘어남에 따라 관내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을 찾는 씨름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훈련과 체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길 바라고, 매년 임실군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위원들은 새해 2024년도 남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질의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현 위원장은 동부권발전사업 관련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고, 강인식 부위원장은 관리대행,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의 적재적소를, 손중열 위원은 시민 공감소통의 자리에 사회적 약자들도 참여 가능을 주문했다.

김길수 위원은 만인공원 부지에 맨발 걷기가 가능한 명품 도심숲, 도심공원 조성, 오동환 위원은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의 호응이 좋아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미선 위원은 보조금 성과평가 지표의 개편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한 기관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오창숙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하여 청년사업 발굴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건강증진분야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건강증진분야 평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금연사업 2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 재활, 모바일 헬스케어 등 9개 분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와 금연 구역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및 계도·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금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귀농인 주택 구입 지원 신청자 모집

2월 13일까지 신청접수

남원시에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1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로 경종 및 축산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하며,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을 대출금리 연 1.5%(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농촌지역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이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촌활력과 새삶터정책팀(063-620-6363) 및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636-4029)로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또다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19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보공개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며, 2023년에는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의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이뤄지며, 기관 유형별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나뉜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전체 기관 평균점수(87.4점)보다 5.62점이 높은 93.02점을 획득했으며, 사전공개 다양성과 원문공개 충실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ASF차단, 15일부터 포획 활동

남원시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2024년 피해방지단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

방지단은 공개 모집한 30명으로 구성해 지역내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 위주로 피해방지단이 집중 투입 출동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서게 된다. 포획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 작년 피해방지단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멧돼지 737마리, 고라니 1,789마리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상당수 포획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시는 본격적인 포획 활동에 앞서, 지난 10일 총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 지침과 안전 수칙 준수사항 등을 남원시, 남원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주관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시는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024년 1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특히 야생동물 포획과 실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부터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앱을 상시 활용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골농협,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공모 선정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춘향골농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퇴비생산업체의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설치와 노후화된 시설개·보수와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 친환경 퇴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춘향골농협에서는 "농협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생산된 양질의 퇴비로 농가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모에 도전하게 됐다"며, "확보된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악취방지를 위한 바이오커튼 설치 등 퇴비 생산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